東亞日報
二十九日夕刊 今日四面
發行人 宋鎭禹 編輯人 李光洙 印刷人 金鐵中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新聞價 廣告料

다시 卒業生 諸君에게
—健鬪力을 發揮하라—

一

卒業式도 이제는 거의 지낫슬줄 믿는다 昨頭같으면 只今쯤은 卒業生의 去就가 大部分 決定되엇슬것이다。그러나 朝鮮人卒業生을 가장 많이 輩出하는 日本서의 卒業生은 勿論、朝鮮에서 가장 就職條件이 有利한 京城帝大의 卒業生조차 그 三分의 一밖에 處理되지 못하얏다。就職이 가장 確實하다든 醫專과 專門도 昨今에는 漸次 困難이 作하는 모양이오 醫藥專門、實業校는 말할나위가 없다。이러하야 有爲한 靑年이 그대로 街頭에서 헤매고 甚하야는 失望的 境遇의 生活에까지 陷入하니 이 어찌 恨歎할 事이 아니랴。

二

大抵 卒業生의 就職問題는 到底 一國만으로 困難한듯하다。그러나 就中 日本、朝鮮은 가장 甚하다 日本은 歐洲大戰中 다른 諸國과 한가지로 學校方面에 大擴張을 하얏다가 戰後 不景氣와 膨脹後는 生産의 過剩生産에 헤매이고 잇다。그런데 朝鮮은 在來 好景氣라 할만한 機會도 없엇거니와 設使 好景氣가 잇섯다 할지라도 活者에 關係되어 그 餘澤을 求乞하는 格의 好景氣이엇슴으로 元來불어 卒業生의 剩餘가 생겻스며 더욱 昨今의 不景氣의 最中에는 그 剩餘가 實로 過去의 幾倍이다。今日의 卒業生의 職難이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닌것이다

三

그러나 再考하면 吾等은 當初의 教育制度부터 改造치 안흐면 안될줄 믿는다。元來 現代의 教育制度는 歐洲의 商業階級의 勃興과 同時에 勃興하야 漸次 現代의 資本制度와 같이 發展한것이니 日本의 現代教育이란 大體 이 商業教育、職業教育을 目的하얏섯다。그럼으로 日本같은 資本主義가 多少 急激하나마 正常的으로 發達한 나라는 그 教育制度도 產業制度에 適應하게 發達하얏지만 朝鮮같이 自主的으로 正常的으로 發達치 못하는 産業制度에서는 그 商業教育、職業教育은 本來부터 缺陷이 많엇섯다。하물며 日本의 產業이 大戰을 一紀元으로 漸次 衰退하야 가서 그 教育制度가 日本自體에서부터 矛盾되기 始作한 이때에랴。教育制度는 改造되지 안흐면 안되는것이다

四

教育制度를 如何히 改造할것이냐에 對하야는 後日 다시 論할 機會가 잇스려니와 于先 當面의 問題로서의 卒業生의 問題는 卽時 이것을 處決치 안흐면 안된다。旣成 教育制度의 缺陷을 말한것으로써 諸君의 받은 職業教育、商業教育이 時勢에 適치 못함을 알앗스려니와 諸君은 그래뿐에 새로운 創造的 方面을 開拓치 안흐면 안된다。보라 朝鮮은 方今 諸方面으로 轉期에 잇다고 할수잇는 同時에 世界的으로는 新局面의 打開를 絶叫하는 轉換期에 處하고 잇다。이 新局面의 打開를 要求하는 現時代에 잇서 所謂 成功의 地盤의 一部分으로서 惰性的 困難的 生活에 沈淪하기보다 意氣를 勃勃한 新方面으로의 活路를 開拓함이 뭇엇이 諸君의 創造的 精神에 符合함이 아닌가。實業方面에 教育方面에 온갓 方面에 創造的 新機運을 이르키라

國民會議에 提出될 約法制定의 內容
建設過程은 軍、訓、憲政三期로
汪氏等의 約法과는 判異

【南京發廿九日特電】王寵惠氏等이 起草中인 約法은 不遠 發表될터인데 그 內容은 如左하다

第一章 總綱 建國大綱으로써 民國建設의 基本原則을 삼고 建設過程은 軍政、訓政、憲政三時期로 하고 訓政期에는 約法이 國家의 根本大法이 될것

第二章 人民의 權利及義務 民國의 人民은 法律上 一律平等、人民은 犯罪證據 或은 嫌疑가 업스면 逮捕拘留審問 或 處罰함을 不得、人民의 生命財産은 國家法律의 保護를 受할 權利를 有함 人民은 居住集合、結社、言論、通信、信教等의 自由를 有함 人民은 納稅、兵役의 義務를 有함等

第三章 政府組織 中央及地方政府의 組織을 規定하고 現在의 國府組織法、省、縣、市政府組織法에 根據하야 中央政府는 五院制를 採用함

第四章 訓政綱領 卽民國十七年 中央에서 頒布한 訓政綱領 全部를 包含한外에 更히 擴大함

第五章 附則

右는 昨年 汪兆銘氏等의 北平擴大會議에서 起草發表한 約法과는 不同하다 卽 汪氏等이 起草한 約法內容은 八章으로 成하며 第一章、總綱、第二章、人民의 自由權利義務、第三章、國權、第四章、中央制度、第五章、地方制度、第六章、教育、第七章、生計、第八章 附則으로 分하야 特히 民生主義實現을 目的하얏다

【東京二十八日發電報聯合】國民政府外交部長 王正廷氏는 重光代理公使에 對하야 撫順의 오일·쩰—의 採掘 採煉의 停止를 要求하는 同時에 還附를 要求하얏다 하는바 日本外務當局은 右에 對하야 議題도 되지 안는다 하야 拒絶할 方針이라 한다

女權運動者 示威運動計劃
輿論을 喚起코저 新聞發刊
國民會議參加要求

【南京發廿九日特電】國民顧問을 組織하야 五月五日 南京에서 開催되는 國民會議에 對한 女權運動者들은 參加要求를 機로 集合하게 하얏다 吳木蘭、林紫英女史等의 各省各縣의 女權運動團體가 南京에서 集合하야 女權運動의 中心團體를 組織하고 新聞을 發刊하야 輿論을 喚起하는 同時에 國民會議에 代表를 參加시키도록 示威運動을 行하기로 되엇다 한다

熱海에 靜養
地方長官會議後 濱口首相

【東京廿九日發電通】濱口首相은 四月初에 熱海에 赴하야 休養하기를 希望하야 地方長官會議終了後 熱海에 赴하기로 되리라 한다 首相은 四月中은 成立한 諸法案의 施行、行財、稅制調査會의 設置等 重要政務가 山積하얏스나 五月下旬까지는 靜養하리라고 한다

撫順오일쩰—의 還附를 民國要求
日本은 拒絶할方針

【東京二十八日發聯合】滿洲旗主가 要求한다 中國側의 主要事物의 하나인 撫順의 오일쩰—은 日本側이 右 오일쩰—을 國民政府 王外交部長으로부터 重光公使에게 向하야 去二十五日附 公文書로서 第三條의 規程뿐만이 아니라 此의 採掘 採煉의 停止를 要求하얏다 오일쩰—은 世界各種鑛物中의 主要한 것이며 此에 中國側에 還附해 要求한것으로서 決코 應할 問題가 아니라고 한다

地方長官召集
政府의 方針指示
그以前에 大更迭斷行?

【東京廿八日發電通】安達內相은 今議會에서 成立한 明年度豫算及諸法律의 實施並히 議會終了後의 政府今後의 方針에 對하야 地方長官에 指示하기 爲하야 四月初에 地方長官會議를 召集하기로 決定하얏다 그리고 內務首腦部間에는 地方行政에 及하는 人事의 大異動을 行하야 地方長官의 異動을 整理할 意見도 잇는바 地方長官會議以前에 實行될 模樣이다

所得稅收納 매우不成績
米國의 不況

【華盛頓廿五日發電通】米國大藏省 調査에 依하면 三月十八日까지의 今年度所得稅 收入額은 八千八百萬弗에 不過하야 前年同日까지의 收納額 一億一千四百萬弗에 比하면 實로 半分도 不足하다는 바 此는 不況의 反影의 顯著한것이다

其他를 協議
豫算施行
廿八日大藏省議

【東京廿九日發電通】大藏省은 廿八日 午後二時부터 藏相官邸에 井上藏相以下 小川、河田兩次官勝參與官各局長等이 集合하야 省議를 開하고 來四月一日부터 施行할 昭和六年度 豫算及 木材、人絹關稅、地租法並 營業收益稅、砂糖消費稅、織物消費稅等 稅法施行에 關한 勅令案 施行細則等에 關한 協議를 行한後 一切의 手續을 終了하기로 決하고 午後六時半에 散會하다

倫敦會議論功行賞
若槻全權은 男爵

【東京廿九日發聯合】倫敦會議의 論功行賞에 對하야는 ...

義務教育을 目標로 (二)
주요섭

그런데 昭和三年末 統計로 보면 全朝鮮에 잇는 公立普通學校數는 一千五百八十一校에 生徒數 四十六萬六千二百五十二人이다。...

行財整理斷行코저 一大調査會設置
政策上의 更始一新을 圖謀
濱口總裁中心으로 善處

【東京廿八日發電通】議會도 드듸어 終了된 故로 民政黨에서는 二十八日의 議員總會를 最後로 하야 所屬議員의 大部分은 歸鄕하게 되엇는데 政局도 이만하면 當分間은 安定된故로 與黨으로서는 今後 政府와 呼應하야 卽時 行、財、稅制의 調査機關을 設하야 于先 政策上의 更始一新을 圖하는 方針이다 ...

今後의 目標는 府縣會選擧
「我等內閣의 威力을 示하야」
勢力分野轉倒劃策

【東京廿八日發電通】多難하든 第五十九議會도 無事히 通過하고 政友會가 壓倒的 多數를 占하고 잇는 故로 今年에는 各 府縣會議員의 改選이 잇는바 民政黨은 首相의 健康問題 ...

比率로는 獨逸 絶對數로는 米國
各國의 失業統計

【東京電】日本商工會議所發表 二月二十日 佛國에 키설쇼—르誌所載의 各國失業者數 調査에 依하면 如左한데 그 各人口에 對한 比率로 보면 獨逸의 七、五八%를 筆頭로 日本은 〇、五%(昭和五年의 國勢調査結果)로서 十五位로 되어 잇다 失業者의 絶對數로는 北米合衆國의 五百萬人(最近은 一月末 現在 六百五萬)이 가장 만코 다음은 獨逸、英國、쏘비트、伊太利、日本의 順序이다(單位千人)

國名	失業者數	人口에 對한 百分率
北米合衆國	五、〇〇〇	四、〇
墺地利	[illegible]	[illegible]
자르地方	[illegible]	[illegible]
伊太利	[illegible]	[illegible]
白耳義	[illegible]	[illegible]
丁抹	[illegible]	[illegible]
체코、슬로바키아	[illegible]	[illegible]
波蘭	[illegible]	[illegible]
瑞典	[illegible]	[illegible]
쏘베트	[illegible]	[illegible]
和蘭	[illegible]	[illegible]
유고、슬라비아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라트비아	[illegible]	[illegible]
諾威	[illegible]	[illegible]
芬蘭	[illegible]	[illegible]
匈牙利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羅馬尼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英印協定을 否決하면 政治生活에서 隱退
「余에 對한 不信任으로 보고」
깐디氏의 今後態度

【카라치廿七日發聯合】어윈印度協定의 功罪에 對하야 方今 印度國民會議派의 注意의 焦點이 되어잇는데 깐디氏는 本日國民會議會場 갠프의 小屋內에 設置한 無線電車의 前에 座하고 新聞記者에게 對하야 今後에 取할行動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余는 어윈總督과의 協定을 國民會議가 否決하고 말면 余의 取할 道를 一時政治生活로부터 引退할수 밧게업다 何故오하면 此否決은 余自身에게 對한 不信任으로 볼수밧게 업는것이라 萬若協定이 承認되면 余는 國民會議로부터 委任은 受諾치아니할 생각이다 그러나 獨立問題及 保障問題에 關한 一定條件을 限定한 制限的 委任을 要求할생각이다 云云

政治的見地로 審議한다면 反對
關稅同盟에 對한 英國要求와
獨逸首相의 回答

【伯林二十五日發電通】獨墺關稅同盟實施延期를 要請하는 趣旨로 駐獨英國大使에게서 外相의 獨逸首相 쿠뤼닝氏는 左와 如히 答하얏다

獨墺關稅同盟은 條件作成 其他 技術的인 點으로 그實施를 國際聯盟 理事會開會外 ...지 不可能하다 獨逸은 聯盟理事會가 수問題를 論議하기를 恐하는者아니나 理事會가 純粹한 經濟問題인 此條約案을 政治的見地로 審議하라 하면 獨逸은 어데까지 此에 反對할터이다

外蒙古地圖 露西亞에 編入
國府에서 嚴重抗議提出

【南京發廿九日特電】蒙古自體의 國際關係內에 入하얏스나 蒙藏委員會 發表에 依하면 쏘베트에서는 또 外蒙古의 一切地名을 改하야 로서아의 國民教科書及 一般地圖에는 外蒙古를 中國의 領土인것을 全然否認하고 異色彩로 定하얏다 하야 國府側은 莫德惠를 通하야 로서아의 一邦으로 로서아側에 向하야 嚴重抗議하고 ...

銀借欵에 張氏贊意
具體로 進展?

【北平廿七日發電通】銀借欵折衝으로 南京에서 來大에 赴한 羅인바가氏는 昨日 奉天에서 張學良氏에게 銀借欵의 贊意를 表하얏다고 말하얏다 右借欵은 南京의 有力支持者인 胡漢民氏의 監禁에 依하야 一時停頓되엇든것이나 同氏南京着後 張學良氏의 意思를 通하야 具體的 進展을 보게되리라 한다

人事往來

▲兒玉政務總監 來三十日午後七時三十分東京驛發京都에一泊 三日京城着의 豫定

橫說竪說

被壓迫民族을 單位로 第四國際黨 組織說 元來 새로운것은 뭇엇보다 新奇하니까。

□

露國 初等教科書에 外蒙古를 쏘聯版圖에 編入했다고 國民政府 抗議 準備。

□

露國은 쏘聯의 이름으로 列强은 國民의 이름으로 各其勢力을 扶植키 努力。사람은 저마다 武器가 잇서。

□

七十名 募集에 五百名 志願 但 이것은 安岐公普의 留學。京城兒童을 留學시켜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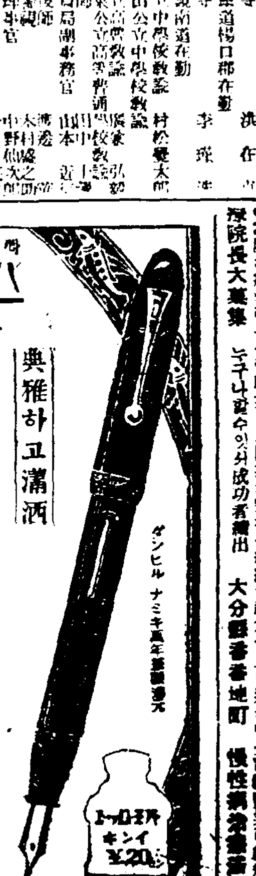
辭令

理事官	命慶尙北道在勤	李根灌
判事	補公州地方法院淸州支廳判事	尹
郡守	命江原道楊口郡在勤	洪
命咸鏡南道在勤		李
補元山公立中學校教諭		村松

恩給 (三月廿六日(木)부터 特別公開)
速力大王 6
金髮의 處女 7
曲馬大國 6
大學行進曲 8
늙은 掃除夫 9
밋그러커라 케—리 9
新아—青春 11
市內 黃金洞 優美館
仁寺洞 朝鮮劇場
團成社

淋病新藥 도리도
淋疾治療의 秘訣
諸君이 苦生하고잇는 淋疾은 淋菌이 尿道內에서 繁殖하는 부림으로 아프고 쓸아린 不快한 苦生을 하게되는것입니다。다시말하면 腹中에 寄生蟲이 棲息하며 害毒을 끼치는것과 갓습니다。...
全快의 깃붐을 틀림업시 어드십니다
特價 三圓、五圓、十圓、輕症用 一圓、二圓
本舖 大阪 高橋盛大堂本店

パイロット萬年筆試用デー
パイロット 萬年筆 三月二十日부터 四月十九日까지 試用期間中은 景品進呈함
品質優良을 宣傳하기爲하야 買上하신 萬年筆 二十日間 試用하시고 貴意에 合當치못하시면 他品과 交換함
京城府二丁目二十七番地 楠商店 電話三九六番


典雅하고 瀟洒
バランス型
新製 ラッカーバンド飾附 パイロット高級萬年筆
斷然舊套를 벗고 未開의 大地에 飛躍한다
東京 株式會社 並木製作所

紅酸療法
大分縣香香地町 慢性淋疾治療研究所

ClibPDF - www.fastio.com

滿洲一帶를攪亂하야 民主主義國家建設
一行九名新義州에서取調中
李鍾洛事件의內容

【신의주】지난달상순경 장춘경찰서(長春警察署)에서 다년간 ○○운동에 종사하든 리종락(李鍾洛)과 기타 만철사원(滿鐵社員)등 일본인四명 도합九명을 검거하야 신의주경찰서(新義州警察署)에 전긔九명과 장치폭파용(裝置爆破用)폭탄三개와 적지안흔 증거서류를 압송하야 이래 신의주서복원사법주임(福原司法主任)의손으로 엄중취조중이드니 최근취조가 끗난뒤에 다시 의심남천이잇서도 경찰부 김고등과장(金高等課長)이 직접송국(送局)을멈추고 취조하는중이데 사건이 하마하드면 일、중국제상(日、中國際上)중대한위긔를 주엇슬것이며 또 사건의관계자가 만주의 좌익민족주의자의 정수분자인만치 취조에 딸하 발각되는 경이적대사건의 실마리가 다음에서 다음으로 풀리어 나옴으로 그와가티 송국을 멈추기까지하고 신중한 취조를 하는중이다

금번 이사건은 최근신의주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중에 대정十四년 신의주경찰서에서탐지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사건 이래 처음으로 취급하는 대사건인데 금일까지경찰에서 취조한 이사건의 대략내용이 아레와갓다

左翼民族團體로 革命軍司令部組織
◇中國軍閥의打倒를計劃◇
爆彈等武器를押收

작년二월초순경 동중철도(東中鐵道)연선에 잇는 찰란둔(札蘭屯)에서 김영순(金永淳)백소천(白小泉)리운파(李雲波)정진섭(鄭震燮)등이 조직한 동아혁명군(東亞革命軍)과 작년八월경 조선혁명군 길강성지휘부(朝鮮革命軍吉江省指揮部)의 선언강령이 공산주의에 기우럿다하야 이지휘부를 탈퇴한 리종락(李鍾洛)은박경순(朴京淳)등과 합하야 그해十二월초순경 순수한 좌익민족주의단체(左翼民族主義同盟)로 길림(吉林)에서조선혁명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를 조직하야 장백(長白) 안도(安圖) 무송(撫松)쌍양(雙陽)회덕(懷德) 장춘(長春)덕혜(德惠)농안(農安) 길림(吉林) 반석(磐石) 등을지반으로 조선○○운동을하는 일방 만주의중국군벌(中國軍閥)를타도하야 一대민주주의국가를 형성하고자 이수단으로는 일중(日、中)간의 국제상풍운을 험하게하야 드디어는 일중전쟁(日中戰爭)을 이르키어 만주를혼란상태에 빠지게한후 계획하얏든목적을 이룰셈으로 금년五월一일을 기하야 우선 만철(滿鐵)병행선(並行線)인중국철도(中國鐵道)를 폭파하고 중국 군영(軍營)을폭파하고자 이에 사용될폭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든중二월상순경 장춘일본령사관 경찰서에 탐지한바되어 사건의관계자 김영순 리종락등九명이 검거되어 이래신의주경찰서(新義州警察署)에 압송되어 금일까지도 엄중한취조를 밧고잇는중이다

五月一日로 破壞에着手
【農民同盟解體로再組織】
第一着은併行鐵道

별항과가티 길림에서 민족주의우파(民族主義右派)와 공산주의(共産主義)를 배제하고 순수한 민족주의좌익단체로 조직한 조선혁명군사령부에서는 김영순(金永淳)을 고문(顧問)으로 두고 五월一일을 기하야 착수실행에 진전하고자 동년十二월하순경 리종락(리종락)장긔명(張其明)김영순三명은하르빈(哈爾賓)을 떠나이통현(伊通縣)회덕현(懷德縣)방면을 순회하면서 국민부(國民府)에서 떠러저나와 공산당(共産黨)의 지도하에 잇는 농민동맹(農民同盟)을 해체시키고 자긔들이 조직한 혁명군사령부의 세포단체로 고처 민족주의세력의 확장에 몰두하면서 일방 김영순을시켜 ○○○의 량해를어더 중국병행철도 파괴운동에 착수하얏다

三隊를組織 三百名武裝
괴란운동의 준비 행동
滿鐵社員까지糾合

일방직접운동의 준비로 혁명군사령부에서는 유격대(遊擊隊)특무대(特務隊)상비대(常備隊)를두어 약三백명의무장을준비하야장춘(長春) 중동선연선(中東線沿線)과무송(撫松)홍경(興京)등지에서 만주괴란의제 [illegible] 괴는 ○○○방면에서 공급하기로 하고 또이뜻에 공명한만철사원(滿鐵社員)택정(澤井)과원동(遠藤)등은 폭탄제조의 책임을지고 이미압수한 폭탄등다수한폭탄을 제조하야 준비케하얏다

被疑者氏名

▲本籍京畿道京城府光化通百三〇番地、金光烈、武田義雄事 金永淳(三七)
▲本籍平北義州郡批峴面院洞 住所遼寧省通化縣快大茂子 金海徐、崔貞三、李鍾洛事 李貞洛(四〇)
▲本籍平北博川郡嘉南面金鷄里 住所吉林省伊通縣孤楡樹王家店 蘇家事 李基明(二五)
▲本籍平北宣川郡群山面古部洞 朴雲碩 朴炳蕃事 朴京淳(三七)
▲本籍平北宣川郡宣川面南洞 住所長春梅枝町四丁目二〇番地 金用範
▲本籍北海道十勝國中川郡 住所南滿洲范家屯附屬地 伊部農治(三三)
▲本籍福岡市養巴町二七番地 住所長春常盤町三丁目十四의八 滿鐵社員 澤井鐵馬(三二)
▲本籍東京市四谷區花園町 住所長春吉野町二丁目八의四 畑中光輝(三二)
▲本籍山形縣布村山郡布沼原村 住所長春三笠町七丁目四 滿鐵長春用度支庫物品講習業 遠藤清一郞(三二)

端川檄文犯 李鍾鳴君出獄

【차호】단천농민一揆사건(端川農民一揆事件)으로 함남리원읍(咸南利原邑)을 비롯하야 동면一대(東面一帶)에 다수한격문(檄文)을 산포하고 작년七월 팔일에 리원경찰에 검거되어 북청(北靑)에서 제一심을밧고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공소하야 六개월의 금고형(禁錮刑)을밧고 그동안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에잇다가 지난二十六일에만기출옥되어 당일밤차로 군선역에 다수동지들영접리에 무사히 도착되어 자긔본가인 의덕리(儀德里)로 돌아갓다는데 몸은건강하다고한다

元山大疑獄擴大 檢擧旋風益擴大
◇사건은 갈스록 확대된다
各會社關係者取調

【원산】원산경찰서 대의옥사건을 원산검사국에서 각방면에 향하야 엄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중심인물삼산(杉山)동량인은 독직죄(瀆職罪)로 원산재판소 예심에 회부하고 증인측으로 소야전(小野田)세멘트회사、라이징크 석유회사、대촌목재점(大村材木店) 원산양조회사(元山釀造會社) 안변학성양조소(安邊鶴城釀造所)국제통신원산지점(國際通信元山支店)덕흥(德興)대성(大成)합성(合成) 원일(元一)각양조회사관계자를소환 또는 미결감(未決監)에 수감하고 목하엄중이 취조를진행중인바 안변학성면 양조회사 전충종(全充鍾)은 二十七일예심에 회부되엇다한다

東江公普學年延長

【고흥】고흥군동강(高興郡東江)공립보통학교는 사학년임으로 지방주민은항상학년 연장을 갈망하엿스나 경비관계로 실현치못하얏는데 금번학교비에 그 예산을 세웟슴으로 연장이되리라한다

元山衝突事件 검사국이송

【원산】지난三월十일 원산부해안통(元山府海岸通)에서 일어난 서리로인하야 함남로동회(咸南勞動會)와 일발선원(船員)간에 충돌한바잇섯는데 원산경찰서에서는 일반로동조원만 인치하고 그간엄중한취조를 계속하다가리홍욱(李弘郁)외七인을폭력행위취체규측위반(暴力行爲取締規則違反)이라는죄명알에 二十一일 원산검사국에 서류만송치하얏다한다

利原農組員 五인을송국

【차호】함남 리원경찰서(利原警察署)에 검거되어 이래여러날동안을두고 엄중한 취조를받아오든 리원농민조합원 등은 지난 二十六일에 김영춘(金永春)김홍재(金洪載)二인은 무사히석방되고 남어지五인은 드듸어당일 오후三시二十분에 송단발렬차(松端發列車)로 북청검사국(北靑檢事局)에 송치되엇다한다 그들은 지난十六일에 천도교농민사리원지부원대회에 경찰은 방청자에게 해산을 명령하엿스나 종시듯지안코 반항하엿다하야 금속된것이다

兩派合同後 第一次大會
記念日前後에열릴各種大會
天日記念과天道敎

천도교중앙종리원에서는 오는 四월五일이 제一세교조최수운(崔水雲)선생의 창도한제七十二회천일긔념(天日記念)인동시에 동교회가 합동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천도교회(天道敎會)와천도교청우당(靑友黨)제一차전당대표회를 비롯하야 四월二일부터 동八일까지의 각종대회가 개최되는때임으로 금번의긔념은 례년에비할바가 아닌창도후 처음으로 대성황이되리라고한다

벌서부터 각지방으로부터 남마다상경하는교역자(敎役者)급각종대회대표가 만타하며 특히 남북만주지방은 물론이오 불국파리(佛國巴里)와하와이(布哇)대표도 출석하리라한다 각종대회긔일(期日)은다음과갓다

一、四月三日午前十時부터 天道敎大會
一、四月二日午後七時 天道敎靑友黨中央執行委員會
一、四月四日午前十時 天道敎靑友黨第一次全黨代表大會
一、四月四日午後七時 天道敎內誠團第一次代表大會
一、四月六日午後七時 天道敎少年聯合會第三回代表大會
一、四月六、七午後二時 朝鮮農民社第四次代表大會

◇記念講談會開催 四月六일부터 동八일까지 三일간 천도교중앙종리원지도관(知道館)주최로 신앙증일파사무협의를하며 새로출판된 천덕송(天德頌)을 주로하야서 긔념강담회를 그교당안에서 개최한다고한다

▲記念準備委員 鄭廣朝、方定煥、朴來源、李斗、柱淵集、金秉濟、李炳憲、金允杰、曹定昊、金玉斌、李乙、李智鉉、朴陽信

密陽權友大會
성향을일워

【밀양】근우회밀양지회(槿友會密陽支會)에서는 제四회정기대회를 예정대로 지난二十六일오후二시에 성내세이동 서한공회당(西閑公會堂)에서개최하고 림시집행부로 의장윤치정(尹致貞)서긔박의정(朴義貞)씨가 등단한후 회록급각부보고가 잇고 축문축전랑독과 래빈축사가 잇슨뒤에 위원을개선하고 좌긔의안을 토의한후동四시경에 만세三창으로 폐회한후 즉시신임집행위원회를열고 부서를 정하엿다

一、敎養問題의件 二、一切封建的因習과 迷信 打破의件 三、農村婦女에關한件 四、財政에關한件 五、本部會館建築資金에關한件

◇新任執行委員長 尹致貞 庶務部長 李英福 同部員 金世鎬 財政部長 朴義貞 同部員 金福發 敎養部長 金玉順 同部員 方且石 宣傳部長 崔末淑 同部員 尹庚守 調査部長 洪起子 同部員 金德岳 委員候補 尹福 韓敬釧 檢査委員長 金敬岳 常務 尹桂順 委員 崔一卿 本部代議員 朴義貞 崔一卿 金福發 建議案作成委員 同上三人

盟休計劃發覺 學生七名引致
新義州高普又動搖
신의주 경찰서는 대활동

【신의주】신의주경찰서에서는 二十八일오전 돌연긴장되어 신의주고등보통학교생도 四학년박일봉(朴一鳳)(二〇)三학년생 도리시호(李時鎬)(一八) 강홍집(康洪揖)(一八) 박근수(朴根洙)(一八)리희동(李熙東)(一九)二학년 김문흠(金文欽)(一八) 전창념(田昌念)(一七)등七명을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내용은 四월신학기에동맹휴학하고자암암리에계획하든것이발각된것갓다한다

給仕一名採用에 五十餘名志願
【어린이의職業戰】

【남원】식산은행남원지점(殖銀行의南原支店)에서는 급사한명을 모집한다는데 지원자가 五十여명에 달하야 식은에서는 부득이시험을 보이가로 결정한바 어린이들도 직업전에 허덕이는 마음을조리고잇다한다

公立商業의志願 合格數의四倍半
◇작년보다 二백五十二명 감소◇
高普보다尤甚한競爭

전조선十五공립상업학교(公立商業學校)중에서 조선인 또는 일본인과 공학하는 十二학교의 금년입학지원자수와 및 새로설시된 평양공립상업학교를 가하야 전부十三상업학교의 금년신학년지원상항은 작二十八일까지로 본사가 조사를 완료한바 금년봄 합격자는 전부八백八十七명에 지원자는 三천九백三十四명으로 四배四를 초과하얏다

이것을 가지고 작년(一九三〇년)에 비하면 二백五十二명의 감소를 보이고잇스니 공사립고등보통학교의 감소률에비하면 아모리전황의 바람이 배웅의 바다에쏘지 크게영향을 미치고 잇스나 이 실업교육에만은 그다지 큰변동이 업슴을 엿볼수잇게한다

朝鮮學生은 志願의七分一
日本學生은 半數가合格
合格率로본競爭의悲劇

그러고 이상의학교중에서 지원과 합격자를 조선인과 일본인별로 구별하야 조사된 경긔、강경、목포、대구、마산 밋신의주(京城、江景、木浦、大邱、馬山及新義州)의 六학교 입학상항을살피건데 조선인은 지원자 一천六백八명에 합격자二백四十九명으로 一백명에대하야겨우十五명반밧게 합격되지못하얏슴에반하야 일본인은 五백一명이지원하야 그중에二백二十五명이 합격되엇스니 一백명에대하야 四十五명이 입격되엇다

그러하야 조선인의 입학경쟁이 일본인의그것에비하야가큰학교안에잇서서 三배나겨심할을 뚜렷이보이고잇다

이제각학교와 금년도 입학지원상항을 소개하면다음표와갓다

◇全朝鮮十三公立商業校入學志願狀況 (一九三一年)

校名		募集人數	志願者數	定員超過	比一九三〇年增減
京畿	朝	四〇	二二六	五倍六二	△一七
京畿	日	六〇	一五五	二″五八	△六六
仁川		五〇	二〇〇	四″〇四	△四二
開城		五〇	一七六	三″五二	△四二
江景	朝	一七	二七一	[illegible]	一三〇
江景	日	二八	七四	二″六五	四四
木浦	朝	五三	二五一	四″七四	△六四
木浦	日	四九	五四	一″一〇	△二
大邱	朝	五〇	二六六	五″三二	△四八
大邱	日	五〇	九一	一″八二	六
釜山第二商		一〇〇	四七四	四″七四	△八〇
馬山	朝	四二	一二九	三″五八	△七
馬山	日	九	二七	三″〇〇	△七
新義州	朝	三二	一三五	四″一六	一七
新義州	日	九	一〇	一″一一	四八
元山		五一	二一〇	四″一二	△一五
咸興		五〇	二〇四	四″〇八	△二三
會寧		五一	九九	一″九四	△三
平壤		五五	四六六	七″五五	—
計		八八七	三、九三四	四″四五	△二五二

被壓迫民族을單位로 第四國際黨組織
◇亞洲文化協會의名義로活動
國民黨中央部援助

【남경특신】종래각지에서 조직된 동방피압박민족련합단체(東方被壓迫民族聯合團體)를 총망라(總網羅)하야 『모스코바』의 제三국제당(第三國際黨)과 별개로 민족(民族)을단위(單位)로한 제四국제당(第四國際黨)을 조직하기위하야 중국、조선、안남、비률빈、대만등 약소민족대표가 금월一일한구(漢口)에서 회집하야 여러가지를 협의한결과 대표자들을각지로파견하야 맹렬히 활동하는중이데 남경중앙당부(南京中央黨部)에서하야든 남경에 근거를둔 동방피압박민족련합회는 취소하고 새로이 조직되는 대련합기관(大聯合機關)에 가입될터이라하며 중앙정부측(中央政府側)에서는 외교상지장(外交上支障)이될가념려하야 당분간 아주문화협회(亞洲文化協會)란명의로 대외활동을 개시케하얏는데 조선인측에서도 다수가 참가하야활동중이다

同衾안는男便 毒殺타가未遂

【원산】남편이한자리에 들지안는다하야 남편을 독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원산검사국에 취조를밧는녀자가잇다 그는 강원도 통천군순령면오류리(江原道通川郡順嶺面五柳里)고계엽(高桂葉)(二三)이란녀자인바 十九세에 리동준(李東俊)이란 남자와 결혼하야 지내다가 一년이못되어 리혼을하고 후동면(後洞面)김창긔(金昌基)(二六)이라는사람과 또다시 결혼하게되어 아이와지나로 지내던바 최근一주일간이나 남편되는 김창긔가 한번도자리에 들지안핫다하야 三월十九일 양잿물로남편을 독살하려다가 그만중도에 발각되어 그와가티 취조를밧는다한다

金泉百萬長者 姦通事件公判
여러가지 층절잇든사건
男女에十個月求刑

【대구】경북김천(金泉)의 백만장자 김모를중심한 간통(姦通)사건은 그동안온갓곡절을거치어 마츰내二十七일、二十八일 이틀에 밧치어 대구지방법원합의공판의 개정을 보게되엇는데 먼저사건의내용은 김모가김천남산정(南山町)가든동리가난한처지의 로모(盧某)의처 김성녀(三七)를간통하얏다는것으로작년三월 김성녀측에서 원래약속한요구를들어 주지안흐면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김모에게 보낸것이 발단으로 김천서에로 모일파틈관어 사긔공갈의 고소를제긔하야 모조리 구인취조를 밧다가김성녀가간통사실부인으로말미암아 석방되자 경성으로 올라가서인제는김성녀측에서간통 무고와고소를 종로서에제긔하는등 한참동안 고소경쟁을하든바 결국모처의 권고로 지원으로 김천지청의 예심에 걸리어 이번의공판에까지 이른것이라는바 피고는 김모、김성녀、로모와서위하야 로모외세명、이중 로모는 간통을괴하로 김모에게 돈청구를하든공갈미수죄이고 김모는 간통과무고의죄명임에 송하(松下)재판장주심과 대원(大原)검사립회하로 김모한사람에게 일곱명의 변호가붙어안즌 가운데 초일에 사실심리를마치엇는데 변정공술은 김모는못하지사실부인 경즉은 악을쓰며 사실시인 그러나검사는 김모를필두로 게집과 다른세명에게징역十개월、로모만 동八개월에집행유예三년의구형이잇섯다한다

不二農場事件 調査員派遣
全朝鮮農組에서

철원불이농장(鐵原不二農場)에서 금춘이래 당지의 어주면七十여호를 내어쫏는 거조가 잇서서 세상에 여론이 자자한바잇거니와 근래에는농장 돌이 소작농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횡포한 행위가 느해가는것을 부단히 주목하고잇든 전조선농민조합(全朝鮮農民組合)에서는 그진상을철저히 조사하기위하야 二十八일아츰 첫차로 중앙집행위원리재량(中央執行委員李在良)씨를 당지로 특파하얏다한다

七十名募集에 志願者單五名
전황으로 인하야 이러케돼
安峽公普校奇現狀

【이천】강원도이천군 안협공립보통학교(伊川郡安峽公普校)에 금년도 신학기에 모집할 아동수는 七十명인데 모집기한인 지난 二十일까지에 동교에 입학을 지원한 사람은 불과다섯명에 지나지 못함으로 동교에서는 아동모집에 면사무소와 협력하야 활동한결과 만아니라 각한 一반의 전황은 가히 이르러 알것이며 금번 학교평의원회에서는 수업료 감하에 대하야는 하등의 문제거리가 아니되엇다고 일반은 학교비평의원들의공적책임이 업슴을 비난한다고한다

米國에大風雪

【미국다와발전통】二十六일부터 二일간에 쌔치어 『콜로라드』주『다와』지방에는 드믈게보는 큰눈보래가 잇서서 여러곳의 교통련락이 두절되어 소학교통학생의 등교도 불능하게되엇다 二十三명의 소학생을태운 『뻐스』는 중간에서 옴지기지 못하게되어 눈속에 파무친지수시간만에 五명은 동사하고 남어지는 간신히 부근농가에 구조되엇스나 폐염에 걸릴념려가 잇다

30日의卒業式

◇大成學院 가사과 제四회 보통과 제五회졸업식을 동대문례배당에서거행

取消申請 昭和六年三月二十四日附 本報 第三千六百七十七號 二面記事中「滯納生調査 退學斷行 發付質問하는 학부형래대」本校로서는 全然 無根之說이오니 全文揭載하고 取消하기를 望함 全州第二公立普通學校

그날그날

日曆
三月三十日(月曜) 二月(大)十二日(甲申)
日出 前六、二三 日沒 後六、五二
月出 前二、三三 月入 後九、五〇
(滿潮) 仁川 前一、三〇 後二、三〇 / 六、〇〇 六、三〇 / 六、一〇 六、四五

天候 京城
三十日 曇一時晴
二十八日最低 一、〇〇
二十八日最高 一四、〇〇

라디오
【三十日(月)】▲午前十時半 氣象槪況、各地大氣實況 ▲十時四十五分 料理品目『부어찜』日用品時勢 ▲正午 時報、뉴-스 ▲午後零時卅分『라디오』學校 趣味의地理(一) ▲一時 家庭講座『育兒에對하야』(一) 西信鎭 ▲二時十五分 運動講座『럭비의戰法』(一) 放送部 ▲三時四十五分 뉴-스、官廳公示事項 ▲五時四十分『라디오』體操、職業紹介事項、今夜의『프로그람』發表 ▲六時半 最新自然科學講座(東京) ▲七時 뉴-스、官廳公示事項、翌日의『프로그람』發表 ▲七時廿分 產業뉴-스(東京) ▲八時 피아노五重奏(東京) ▲八時卅五分 長唄 ▲九時十五分 正調江差追分 ▲九時半 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時報 ▲九時四十五分 映畫小唄 一、放浪歌、二、落花流水、三、人友歌、四、雨路、五、情禍、六、落歌、七、阿里郞唄外數曲集(伴奏)金龍秀

運動競技

아라메다4稻門3

【東京廿九日發電通】東京에서의 今野球씨-슨의 劈頭인遠征의 아라메다軍對稻門 第一回戰은 廿八日戶塚球場에서 아軍先攻으로開戰하야 四對三으로 아라메다-勝하얏다 또 아라메다와『산사러』、稻門伊達、矢島는 各各二壘打를 첫다 兩軍投捕 (아)겜베르모크-카리(稻)福田-伊達、伊丹

得點 (아 100000210=4 / 稻 003000000=3)

아라메다3法友1

野球戰은 二十六日 橫濱球場에서擧行、十一回延長戰에 三對一로 아라메다勝、兩軍投捕(아)E마토스-카리(法)若林-林井

橫濱商業專門對아라메다野球戰은 二十四日 橫濱公園球場에서擧行、十一對三으로 아軍大勝 兩軍投捕(아)넬슨-카리(商)岩瀨-廣田

럭비리-그戰

優城13京中倶0 優城對京中倶럭비戰은 廿七日午後五時 京中球場에서 擧行、十三對零으로 優城軍勝

鐵道14京中倶5 鐵道局對京中倶럭비戰은 廿五日 午後四時四十分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擧行、十四對五로 鐵道局勝하얏다

京中6京商6 京中對京商럭비戰은 廿八日午後四時부터 京中球場에서 擧行한바 九對六으로 京中勝하얏다

◇高等專門學校受驗生 ◇中學部 各學年生 生徒募集
京城高等豫備學校
◇入學案內書用紙三錢郵券二錢 京城古市町 電本二三二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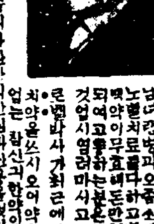
◇電氣部(本科 豫科) ◇土木部(豫科) 生徒募集
京城電機學校
◇入學資格 小學、普通學校卒業者 ◇入學案內 郵券二錢 京城古市町 電本二三三二

優良 理髮機械 精選
吉
內容 理髮機械 理髮鋏 빗、솔 面刀、竹金
一號品 二號品 三號品
吉川金物支店 京城鐘路二丁目
振替京城一〇九〇七番 電光三八八番

地方外交員大募集 月收四十圓以上 詳細聚問 地方金錢切手添付照會
洋傘製造工及見習生若干募集 本人面會時間午後四時로六時까지 京城府黃金町一丁目九三 朝鮮洋傘製造工場

一般眼科 美眼整形科
重瞼手術每日 美眼手術每日 入院室完備
釜山 松井眼科病院 醫學博士 松井武部
釜山府大廳町一丁目 (電話二一四二番)

린질 대하증 근치 절대보증
만일무효면돈을도로드림니다
유명한독일구로벨박사가발명햇슴니다



京城府西大門町二ノ八六(石工場前)
直輸入總販 製造發賣元 신성당대약방 神聖堂大藥房
振替京城四九五〇番

地方論壇
共榮商會廢鎖
根本原因은經營缺陷
長水 一記者

長水는 商業的思想이 缺如하얏든 關係로 日本人과 中國人들이 商權을掌握하고잇섯다 그러하야 그들은 愚昧한 農民들과 物價時勢에 눈어둔 一般消費者들의 無知를 利用하야 二倍三倍의 暴利를 貪하고잇섯다 그리하야 우리農村經濟는 日復日 萎縮하든바 이에自覺한 地方靑年諸氏들은 一口五圓式의 口金을募集하야 約四千餘圓이란 巨大한資本金을造成하야가지고 今三年前에 共榮商會라는 商店을創設하얏섯다 本來本商會의趣旨와 根本精神이 絶對로組合員들의 私利를獲得하랴는것이아니라 우리日常生活의必需品을 一般需用者에게 廉價로供給하야 日復日衰頹하야가는 農村生活의窮迫을 緩和를圖하는同時에 諸般物價를適宜하게調節하야 우리의經濟的衰頹를 防止하랴는것이엇슴으로 諸種의物價도 他商店에比하야 顧히低廉함으로 自然他商店에서도 이에隨伴하야 一律的으로 諸般物價를 低下하게되야 地方物價調節에 적지안한貢獻을 하얏다 그러나 그運命은單三個星霜이못되어 存續을保全하지 못하고 近日에至하야는 經營難으로말미암아 店門을閉鎖하고 事業의 終焉에 歸하게되엇다 무엇이 그 原因이냐

×

이에同商會의閉鎖의主要한原因을보면 該商會의全資本과商品이外上으로 乏絶되어버렷고 現金收入이되지안함에 잇다한다 무릇 規模의商業은現金主義가第一良策이다 그런데이商會의外上額은 놀라지마라 資本金四千圓에對하야 三千四百圓이란宏大한 數字다 이것을 다시個人別로보면 一人當 普通 二三十圓으로부터 甚하야는四五十圓價額의物品을 外上으로 消費한者들이니 어찌商店이 維持할수잇느냐 이제그 消費者의生活程度를 洞察하면 其當者가 餘裕綽綽한者들이다 그러면 왜 이사람들이 外上을 하얏는가 이것은 大槪自己가 이미 五圓의 口金을 내엇다는것과 經營者가 信用이 잇는者라고 얼마든지 外上을 준 까닭이다 勿論 外上을 가져간 이들의 無責任도 잇스려니와 經營者의 商業에 對한 觀念이 不足하야 畢竟이 것을 비저 낸것이 아닐가 過去事는 어찌할수도 업다 그러나 이제라도 收拾方策은 外上가져간이가 自進하야 이것을 낼것과 今後다시 開業이된다면 外上制度를 廢止하고 또 口金을 내려 組合員을 만히 網羅하고 時價를 내리우는 대신에 그 利益金을 組合員에게 年一二次 配當하는 純組合式으로 함이 올켓다

賦役나온六十老翁 勞務中에卒倒死亡
춘궁에 몰려죽고 부역하다가 報恩郡에생긴不祥事

【보은】 충북보은군보은면(報恩郡報恩面)에서는 도로수선을 하기위하야 지난二十六일 보은청주(報恩淸州)간 도로에 잔돌을 운반하든 중 보은군보은면교사리(報恩郡報恩面校士里)에 사는박석걸(朴錫傑)(六○)이라는 로인이 졸도하야 혼수상태에빠진것을본 동료들은 업어다가그집에주엇다는데 로인은 그길로 돌아오지못할 황천객이되어 버렷다

죽은원인이즉 춘궁은 닥처오고 먹지못한 주린창자를쥐고폐하지못할 부역(賦役)을 나오게되어 그와가티 죽은것이라한다

槿友平壤支會 四回定期大會

【평양】 근우회 평양지회에서는 二十八일 오후한시동회관상층에서 제四회정긔대회(定期大會)를 조신성(趙信聖)녀사사회로 개회하얏다 출석회원은八십여명이엇스며 첨명파 각부보고 회세보고 등을 행한후 압에와가티 임원을선거하고 토의사항에 드러갓다

◇討議事項 一、槿友支會促成의件 一、財政方針의件 一、夜學擴張의件 一、全體大會代議員選出의件 一、女性消費組合의件 一、迷信打破運動의件 一、全體大會議案의件 一、其他

◇執行委員長 朴현숙 ◇委員 王혜실、金경옥、朴원실、張계두、金혜숙、張정현、金명복、白덕수、崔의경、張선균、李한실、吳인근 ◇檢查委員 金선경、玄미선

絶島改良塾에 突然閉鎖命令
백여아동은 길가에서 방황 隣近住民의重大問題

【안주】 지난三월초순에 안주군동면금서리(安州郡東面錦西里)개량숙(改良塾)에대하야 군당국으로부터 돌연히폐쇄를 명령하야 백여아동은 배움의길을 일코 길가에 방황하고 그곳주민들은 군당국의처치에 분개하야 도에진정키로작정하얏다는바 그곳은고래로무골도(無骨島)라칭하는청천강(淸川江)중에四百여호의주민이살고잇는섬으로사면이다-청천강 지류에 둘려싸여교통이심히불편하고 린근보통학교에를갈래도 二十리이상五六十리의 상거가 됨으로개량숙의폐쇄는 그지방주민에게大한문제라고 한다

大田報恩間 自動車開通

【대전】 대전(大田)으로부터 옥천(沃川)을경유하야 보은(報恩)까지의 승합자동차 정긔운전은 보은 청수홍(淸水弘)씨로부터 일즉이 충북도당국에 허가를출원중이든바 지난十一일부로 인가가나왓슴으로 근근영업개시할모양이라는바 대전 옥천 보은간 매일三회씩왕복한다하며 임금(賃金)은 알에와갓다

大田、沃川間 七十五錢
大田、報恩間 二圓四十五錢
沃川、報恩間 一圓七十錢

日本人多數
부의자격자

【전주】 전북전주군전주면(全州郡全州面) 읍의원(邑議員)선거급피선거(選擧及被選擧)유자격자를 조사한바 조선인은 五천五백五十八호에 四백三十一인이요 일본인은 一천二백二十六호에 五백二十二인으로 九백五十三인이라는데 그자격자를 호수에 비하면 조선인은十三호에 一인씩이요 일본인은二호반에 一인씩이다 호수는 일본인의 五배이상을 점령하얏스나 유자격자는 일본인보다 九十一인이 부족한것으로보아서 조선인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파멸되는참상에잇다

三月、八月두달간의 採伐手數料免除
高原森組評議會可決

【고원】 지난二十六일 고원삼림조합의회(森組評議會)는 동군청회의실에서 열리엇는데 六년도예산을 토의중 채벌검사수수료(採伐檢査手數料)에잇서 一정보에 一원이라는것은 금년가티 전화한때에잇서 조합비를 부담하면서 자작소유의 시탄채벌에까지 수수료를 부담함은넘우도 과한부담이니 금년부터는 면제함이 어떠한가를 강봉기(姜鳳起)씨의 론술이 잇서일석이 자못긴장되엇섯다 그러나 외장으로부터 이것은 산림보호를 방지하는정책이어서 면제할수업다고 술한다그런다니다가 시목을 만히채취하는시긔를 청하야 그긔간에서만 그를면제하면 어떠냐하는조명준(趙炳俊)씨의 론술이잇서드되어 三월、八월량개월하고이두달만은면제하기로되엇다한다

黃海道初等校 卒業者激增
公立一割二分、私立四割四分 比昨年大體로增加

【해주】 금년도 황해도(黃海道)내 초등학교 졸업자수는 공사립남녀합하야 실로 四천七백九十二인인데 이것을 비교하면 알에와 가트며 작년도에 비하야 보면 공립보통학교 졸업자가 겨우 一할二분의 증가를 보게되엇스며 사립학교는 실로四할四분의 대증가를 보게되엇다 한다

校別	今年度 男子	今年度 女子	昨年度 男子	昨年度 女子	增減 男	增減 女
公普	三七七一	六○五	三三○四	六○八	四六七	△三
私普	二九一	一三五	一九一	六八	一○○	六七
初等(工)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業(農)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鏡城朱北의 普校가全燒
公會堂等四個所에난위教授 損害는二萬餘圓

【어주】 함경선회문역전(咸鏡線會文驛前)에잇는 주북공립보통학교(朱北公立普通學校)는 지난二十五일 오전三시에 발화되어 전소가되엇다는데 발화원인은 조사중이며 손해는약二만여원에달한다 의외에 전소를당한 학교측에서는 할수업시부근 공회당、회사창고、곡물검사소등사개소(公會堂、會社倉庫、穀物檢査所等四個所)를임시로비려오는四월一일부터분할하야 수백명학생을 교수할예정으로 목하준비중이다

窺岩面民大會
公普期成을目的한 금년중에 괴어 인가엇고저

【부여】 충남부여군규암면(扶餘郡窺岩面)은 군내수륙교통의 중심지대에잇슬뿐아니라 면적과 인구의밀도로보아서도 동군에서 굴지하는기면임에도불구하고 지금것 보통교육기관이업서서 취학할아동들에게 막대한 곤난을준것은 물론이요 대정十二년도에 공립보통학교 긔성회(公普校期成會)를조직하야가지고 우금까지 八년동안을 지나오는동안에 모집한보통학교는 설립치 못하고 다단한 문제만만허지으로 일반면민은 우려를마지안튼바 금번에흥히 부여군내에일개 공보교가 증설되게되는것을 과회로 과성회간부들은 대합동을 개시하야 지난二十七일 정오부려 동면 사무소 광장에서 동면장유도준(俞鶴濬)씨의 사회로 면민대회를 개최하엿다는바 출석회원이무려二백여명에달하야 대성황을일우엇다하며 새로히 기부를 모집한총액이 약五천원에달하는바 즉석에서 동회장김현갑(金顯甲)씨의 이천원 긔부를필두로 신립자가 속출하야이천칠백여원에달하엿고 다음과가튼 결의가잇슨후 동일오후六시에 무사산회하엿다한다

討議事項 一、寄附金募集의件 二、寄附金募集委員選擧 金萬禮、金顯甲、李錫圭、康來淳、金商鶴、金鳳斗、姜奉川、金達天、林炳大、俞鎭成、盧明恩及各里區長

싸흠끗헤溺死

【보녕】 보녕군대천면목장리(保寧郡大川面木場里)사는 최주현(崔周鉉)의처 김성춘(金成春)(三一)이라는녀자는지난二十二일오전六시경에 대천교밋물에 빠저죽엇는데 그원인을 조사한즉 그남편과 시어머니와 싸홈을한후에 세상을 비관하고 죽엇는데 어린자식남매의 우는소리는 참아볼수업다

仁和學校改築
四월二일부터

【평산】 평남맹산군 지덕면효리(孟山郡智德面孝里)에잇는사립인화학교(私立仁和學校)는二十여년전에 설립되어 만흔아동을 가르처오든바 근년에와서는 동교사가 넘우도 퇴락되어 동면효리、덕화(孝里、德化)라리에서 천원예산으로 오는四월二일부터 六월一일까지에 교사를새로히 건축하리라한다

兩學校를援助
江界鄕校財産으로 교사대여와 자금을조달 教育界에喜消息

【강계】 강계사립교육긔관(江界私立敎育機關)은 교사문제、재정곤난으로 당국자들은 로심하야오는터인데 이제 만흔재원을가지고잇는 강계군향교(江界郡鄕校)에서는 양성(養性)유신(惟信)량학교를 동정 후원한다는 깃본소식이잇다 지난二十四일은 강계군향교 장의회(掌議會)이든바 유지리방협(李邦協) 전시항(田時恒)으로 동회의석상에서 교실이업서곤난을당하는 양성유치원(養性幼稚園)에는 향교소속의건물을대여하야주기로하고 유신학원(惟信學院)에는 현금으로四十원을긔부하기로하얏다 천체된 강계교육계에 큰서광이라하며 특히 향교의 첫사업이니만치 또다시 장래를기대한다고한다

彩雲學院을 面長이放賣
면민분개대회결의

【강경】 지난二十六일 오후 시에 채운면사무소(彩雲面事務所)에서 동면유지 十수인이모이여 면민대회를개최키로 하야다 그내용이즉 八년전에동면유지들은 면내에 교육긔관이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하고 면민들의 어려운힘을 싸내어 六十여평의

巡査로詐稱 金品을强盜
◇주인을결박하여 노코 現金八十圓을奪去

【해주】 지난二十六일 오후十一시경에 해주군취야시(海州郡翠野市)에서 상업을 하는 김봉문(金鳳文)방에 해주경찰서 수사로 사칭한 강도한명이 침입하야 적지안흔 현금을 훔처가지고 도주한일이잇다

전긔 二十六일밤 주인이 혼로잇는사이에 난데업는 괴상한 청년한명이 나타나며 자긔는해주경찰서에 근무하는 순사인데 그대에게 잠간물어볼일이 잇스니 나와동반하자하야 포승으로 김봉문을 결박한후에 철궤와도 八十七원을 훔처가지고 도주하얏다는것이다

이급보를접한 해주경찰은 각경찰에 수배를 놓이어 방금범인수사에 로력중이다

榮山浦大火
손해천여원

【영산포】 지난二十七일 오전一시四十분경에 전남영산포(榮山浦)二七九의 二번지 약종상(藥種商) 최규홍(崔圭洪)씨의 집에 불이나서 야반(夜半)에화재가 충천함으로당지주재소(駐在所)에서는 『싸이렌』의급고로시민과 소방대를 총출케하야소화에로력한 결과 동三시반경에겨우 진화는 되엇스나 손해는 一천오백원 가량이라하며 원인은 아즉 조사중이라한다

別河郵所開業

【위원】 평북강계군성간면 별하(別河)에우편소(郵便所)설치원을 당지 유종찬(劉宗燦)씨가 제출중이든바그간 인가되어 지난二十六일부터 우편사무를 개시하얏다

淳昌火災頻發

【순창】 전북순창군읍내 남계리삼천장치(淳昌郡邑內南溪里森田長治)라는 일본인의집 변소에서는지난二十六일오후八시에 불연불이 일어나서 것잡업시 타오르는 불길은 삽시간에동변소일동을 전소시키고 옷집류극렬(柳克烈)씨의 집까지 연소케되야한동안은 어찌할줄을 몰으고큰소동을 일으켯든바 一二구소방조원(消防組員)총출동으로진화에로력한결과 동九시경에 진화되엇다는데 원인과손해액은 방금조사중이라하며 한달도 못되어 이와가티 불이자조일어남으로 일반은 큰걱정중이라한다

詐欺團逮捕
보녕경찰이

【보녕】 충남보녕군 청라면소양리(保寧郡靑蘿面昭陽里)리창우(李昌雨)는동면외엄리(鄭華波)과 장사를하고저 군산(群山)방면에가 두류하는중 권괴엄과섭이가 려관호(李光鎬)외 四五인과 비밀리에서 련락하야 리창우의재산을 사긔하기로 약속하고 요리집으로인도하야 하로밤에 수백원을소비케하고 리창우를 은근자집으로유인하야 또수백원을 소비케하고가 리창우는 이것을알고 보령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얏슴으로 지난二十四일 보령경찰서에서는 권괴엄과 그외 三인을 검거하고 엄중취조중이라한다

스님이强盜

【평양】 중(僧)이 강도질을하고 지난二十

私立普光學校 授業料를減下
◇재계불황으로인하야

【안주】 안주(安州)성내사립보광학교(私立普光學校)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곤난중에잇는조선사람으로서 더운이 금년에미가폭락으로인하야 몃십전되는 수업료(授業料)를 내지못하고 중도에퇴학하는 학생도만흐며 입학지원에도 관계가 되겟슴으로 이정세에 비추어 종래에일학년 五十전이든것은 그대로두고 二학년 七十전을 六十전으로 三학년이상 일원이든것을 八十전으로단연히인하하엿다

不平欄

葉書로 口頭로 本報支分局에 알님을

全州川護岸工事를 完山橋로부터 全州橋까지 着手한다고 야단법석하더니 今年度에 全部竣工된모양이지? 또는 全州製絲工場前 濁流川堤는 破壞되지가 이미오래되엇스나 工事할念도안하는모양인가요(全州一讀者)

答 全州川工事는 三個年繼續事業인關係上 今年에一部分만 하게됩니다 濁流川堤는 石岸工事가 完了한後라도 完山町一帶를 着手한後에 그附近에 着手하기로 한답니다(全州郡長)

會寧道路改修 農民被害不少
밧에 길을내여 수천원 손해 郡과面當局의處事

【회령】 지난二十六일회녕(會寧)리도평의원(李道評議員)집에는 농민수명이와서 신설도로가자긔 소유토지에 수천평씩손해를보앗다고 억울한사정을 하소연한사실이잇다

그들은 팔을면(八乙面)에사는 농민들로서 회녕서부터팔을면과 룡흥면새국(龍興面새국)을지나 옹긔(雍基)로가는 종래의등외도로를회녕군당국과팔을면당국에서 금춘에 등외도로를 개수하고저 측량까지 하여노앗다는데 그계획에의하면 그연변의밧을께뚤너야 할것이 적지안타고하며 그중에 도천숭남(全南)씨밧가튼것은 바로밧한가운데로 약二천평이나 도로에사용되어야하게되엇고 그바게도四五인이나 그와가티 만흔존해를보게되엇다고한다 관계당국은 지주에게 보수도업시 그지주가 자진하야 토지를 긔부하는형식을 취하도록 권고를하나지주들은다만 도로에사용케되는 그몃천평만의 문제가아니고 밧을그와가티 일케되면 결국밧체의 가치가떨어지게되는 관계상적어도몃천원의 손해임으로 긔부를승락할수업는처지나 이미측량까지하야 노앗슴으로 그와가티 사정을호소한것이라고한다

忠北藝娼妓 二百二十人

【청주】 충청북도내에는 료리옥(料理屋)十九개소음식점(飮食店)一천一백九十四개소가 잇는데 그중예기(藝妓)一백九인、작부(酌婦)三十七인、고용녀(雇傭女)八十三인、합계二백二十九인이엇다하며 교육정도는 소학정도졸업자 六十六인 중학정도졸업자 十인、소학교정도 중도퇴학자六十一인이라한다

橫城衡平總會

【횡성】 지난二十五일 오후七시부터 형평사횡성지부(衡平社橫城支部)에서는 총본부 강원도순회위원박평산(朴平山)씨를 마지하야 동회관에서 림시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튼 결의와임원선거가잇섯다

▲決議= 一、全體大會代議員選定 金月岡 一、本部月捐金滯納의件 一、其他

▲任員=委員長吉炳成、書記長吉龍玉、組織財政部長金月岡、敎養出版部長金石崇、婦人靑年部長趙英俊、生活保障部長李大平、社會部長趙

會合

◎淸原積成組合役員會 去二十二日當事務所에서開催
◎淸原公普校卒業式 去十七日同校에서擧行
◎淸原積成組合定期總會 來四月十一日에淸原公會堂에서開催
◎順天黃乙秀君(拳鬪選手)歡迎會 去二十七日東亞旅館에서開催
◎江界明新學校同窓會 去二十四日同校室에서開催
◎江界天道敎宗理院例會 去二十五日同敎堂에서開催
◎西面伽倻私立普院第七回卒業式 去廿五日同院에서擧行
◎西面公普校第六回卒業式 去廿五日同校에서擧行
◎沃川農業補習學校第三回卒業式 去廿二日同校講堂에서擧行
◎平康公普校第十七回卒業式 去廿五日同校에서擧行
◎平康公普校學藝會 去廿三日同校講堂에서開催
◎平康金融組合評議會 去廿八日同事務室에서開催
◎平康禁酒會月例會 來卅一日本報平康支局事務室에서開催
◎高原公普校第二十一回卒業式 去二十五日同講堂에서擧行
◎博川協成學院第五回卒業式 去二十五日同院에서
◎博川幼稚園保育證授與式 去廿四日同園에서
◎孟山大道敎內誠團創立八週年記念式 去廿五日同敎堂에서擧行
◎三湖公普校第七回卒業式 去二十五日同校에서擧行
◎孟中公普校卒業式 去二十二日同校에서擧行
◎北倉公普校 第十六回卒業式 지난二十三日同校內에서擧行
◎北倉一山幼稚園保育式 지난二十四日北倉普校內에서擧行
◎載寧明新院第三回卒業式 去二十四日本院에서擧行
◎載寧郡棉作獎勵會 去二十五日載寧郡會議室에서開催
◎載寧郡學校評議會 去二十四日郡會議室에서開催
◎載寧公普校卒業式 去二十五日本校講堂에서擧行
◎統營學友會定期大會 去二十四日母校講堂에서開催
◎鏡城郡學校費評議會 去二十六日閑昭樓上에서開催
◎奉天公普校卒業式 去二十五日同校講堂에서擧行
◎新安州龍山公普校第一回卒業式 去廿四日同講堂에서擧行
◎槿友釜山支會新任委員會 去

二十六日同事務室에서開催
◎私立卒業靑校第七回卒業式 去二十五日同講堂에서擧行
◎永興女子夜學校第八回卒業式 去二十五日同校에서擧行
◎安東花田幼稚園第一回卒業式 去二十五日同園에서擧行
◎博川育明學院卒業式 去二十二日同院에서擧行
◎德成學院卒業式 去二十五日同院에서擧行
◎批峴公普校第五回卒業式 去二十五日同講堂에서擧行
◎批峴信成女子夜學第七回卒業式 去二十五日禮拜堂에서擧行
◎江西農業補習學校卒業式 去二十五日同校에서擧行
◎江東明明學校卒業式 去二十五日本校內에서擧行
◎勝湖公普校卒業式 去二十五日同校堂에서擧行
◎西面龍湖東明學院第七回卒業式 去二十日同院에서擧行
◎西面敎會培英義塾第八回卒業式 去二十三日同敎會講堂에서擧行
◎天道敎孟山郡宗理院會 去二十七日同郡敎堂內에서開催
◎路下公普校第三回卒業式 去二十四日同校에서擧行

消息

◎鍾周燦氏(蔚珍郡守)歸任人事次 去廿六日本社蔚珍支局來訪
◎李晳求氏(蔚珍郡屬)榮轉人事次同上

◎上村寶德氏(谷山郡庶務主任)平山郡轉勤人事次二十七日本報谷山支局來訪
◎迫田秀一氏(路下驛長)今般黑橋驛長으로榮轉人事次去二十八日本報路下分局來訪
◎金原山一氏(路下驛長)新任人事次本報路下分局來訪

地方雜信
安城一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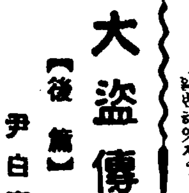
◇賦役의 過重한 賦役으로 人民의 苦痛이 莫甚함은 事實이나 이 事實을 新聞에 大書特書함은 安城發展에 妨害되는일이라고 當局에 아첨하는 所謂有志紳士가 잇다한다

◇그紳士의姓名은 다음에 알기로하고 그紳士의 祖先부터 뒤저보앗스면 조켓다고 憤慨하는 사람들이 잇다

◇人民을 苦痛의 구렁에 빠트리고 그대로 不過함이 地方發展에 有益하다는 論理는 責出鶴聽 紳士의 所見!

◇굶머가며 賦役하는 窮民에게 貪食供應하라는 誘文을 各面有志에게 發送하라든 繁榮會의 計劃은 郡廳의 制止로 失敗되엇다

◇貪食供應廢止勸告文을 發送키로 計劃하얏더면 크게 成功할번하얏지?



大盜傳 (88)
【後篇】 尹白南 作 漢北居士 畵

七、벽서괴마(十八)

「이 밤중에 성내로 들어간들 무슨일을 해보겟나 날이 밝어서 드려가지」

무룡은 심중에 이미 계획을 세운바가 잇는듯이 침착한 태도로 이러케 대답하고

「안심하시고 주무십시오 밤도 느젓스니」

하며 모녀의방에서 나섯다 그들은 방문밧까지 나와서 압새로 돌아가는 무룡을 검저에넘치는 눈으로 전송하얏다

하로인마누라는 젊은 무룡을 볼수록 행방불명이된 사위 생각이 낫다 비록 그의 재간이 무룡에게 비할것은 못된다할지라도 그래도 사나희라 따막할때에 외론 한마듸라도 할수잇슬것이고 실마하니 게집자지 해엇기게야지는 되지 안햇슬것어다

「어이구 이애야 나는 커이를 볼수록 비낭떠생각이 나더라 지금은 어데가서 무엇허구잇는지」

「변인간 또 왜 그생각은 허시요 어머니 젊은사람이야 어대간들 못살라구요 돌아올때가 잇슬것이지오」

「지금 가다서야 돌아오는 우리가 어데잇는지알겟느냐 인제는 다시맛날가망이 전혀업다」

하고 한숨을지엇다 보배여시 어머니의 한심한말에 가슴이써근하야 눈물이 핑돌며 고개를 숙이엇다

「어머니…… 그만해두서요…… 서방맛나 잘살고 못사는것도 다 제팔자이지오 그보다도 돌오신 아버지시나 하로밧비살 [illegible] 안소」

보배의 환에서는 참다못한 눈물이 방울방울 떠러지고야 말어지엇다 그방울을 보고 서잇든 하로인마누라는 방안으로 들어가 한구석에 쭈그리고 안저서 흙흙 느껴며 울엇다

뒤人산에서 우는 부헝이 울음소래 처량하게 들려온다

이날밤 무룡은 곽선생과 만나고 떠러고 하로인을 구해 내일 방책을 연구 하야보앗다 그러나 조흔 방책이 좀처럼 서지 아니햇다

무룡은 한손으로 이마를바처고 한손으로 목덜미를 슬슬문질르면서 고개를 숙이고 안자서 무엇을 한동안 잠잠히 생각하고잇섯다 두사람은 다만 멍하니 그의 허는양을 바라보고 잇슬 따름이엇다 그러나 무룡의 고민하는 양이 보기에 딱하얏던지 곽헌은

「여보게 과히 애쓰지말게」

「애쓰지안코 되는일이잇소」

무룡은 조용히 고개를돌리며 이러케 대답을하엿다

「하도 애쓰는것가타서 보기에 딱 하여 그러네 그러나 업시 내일 금부로 넘기기전에 이 밤人중이라도 취향떼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빼내오세그려 자네 재주에그래 어려울게잇나」

「안 돼요」

무룡은 고개를 설레설레흔들엇다

「그건 형님이모르시는말슴요」

「……………왜?……」

안될내려이잇자오 떠출천이면모르거니와 지금은 그네들도집이나서 하로인을 가두어노흔방에는 그아펌로 사람오로당을 쌓다시피 파수를 엄하게하고 잇슬것이족 설혹 들어갓다가는도리어 봉변하기쉬우니까 어번에는 다른 수단으로 하야지오」

「글세 자네말을 드러보니 그는 그럴뜻하며이마는 최양떡에게 복수를 한다는것은 무엇으로 하려는가」

「그것이야 하로인을 구해노코 다시 할것이지요 무엇보다 급한것은 하로인의 일이니까」

무룡은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듯이 한편을 노려보며 거칭으로 이러케 대답을 하얏다 그리고 그자리에 들어누며 두팔로 머리를 고이엿다

세사람은 입을 다믈고 각기 제생각의 외를 꾸미어보앗다

「여보게 만형어」

하며 무룡은 벌떡 어테나 안젓다

「비」

「자네말대로 드러먹을사람을 하나 어둘수 잇겟나」

「아는 녀석을 부려다가는 되려 탄로되기가 쉽지요 돈만 쓰면야 모르는놈이기로 사람여술 못부릴게 뭡이 잇습니까」

「올」

무룡은 만족한 낫을 보이엇다 그리고 곽헌에게로 고개를 돌리엇다

「형님 이번에는 형님께서 좀 고생을 하시는수밧게 업소」

殺到한金泉高普新入受驗生

謹告

任記者 [illegible]

任顧問 李性欽
昭和六年三月二十五日 東亞日報社麟蹄支局

任記者 金鎭燮
昭和六年三月二十五日 東亞日報社佳龍分局

任記者 安允弘
昭和六年三月二十五日 東亞日報社鐵原支局

讀書週間

第十三週

內外新刊評

朝鮮史話集 ─ 李殷相氏의 近著를 讀하고

李光洙

朝鮮史의 民衆化이것은 朝鮮에서 甚히 緊要한問題다。왜 그런고 하면 朝鮮人은 學校에서 朝鮮史를 배울 機會가 甚히 드물것이 첫재 까닭이오、朝鮮人은 唐明等의 拜外思想을 겨오 脫하야 民族的 自我意識을 覺醒하는때이것이 둘재까닭이다。朝鮮史의 民衆化에 關하야는 나는 二十年前붙어 뜻을두엇고 또 六堂崔南善氏의재촉과 激勵도 여러번 받앗엇으나 자리잡지못한 내 一生이매다가 本來史眼이 없는데서 겨오 麻衣太子와 端宗哀史의 小說二篇을 지을뿐이엇엇다。李殷相氏의「朝鮮史話集」은 朝鮮史民衆化에 對하야 重要한任務를 다할수잇는 好著述이라고 할것이다。

이번 東光社에서 發行된 朝鮮史話集은 東亞日報紙上에 連載되어서 稀罕한 好評을 받던것이엇다。그 材料가「赫居世와 脫解」、「東明聖王」같은 正史中에 主要人物로 붙어「薛娘과嘉實」、「公主와 溫達」과 같은 半傳說的 人物에 이르기까지 三國史上에 가장 主要하고 小說的 興味잇는 題目 四十五題에 十九枚의 挿畵를 붙은 實로 朝鮮서는 드물게 보는 親切하고 힘들인 出版物이다。그 表裝이 古代壁畵를 取하도 著者와 發行者의 用意를 볼수 잇어 매단히 기쁜 일이다。

이것이、三國時代에 그치니 麗朝篇、李朝篇도 續刊될것을 豫期하거니와 아모려 이렇게좋은 朝鮮材料라하더라도 筆者에 그 사람을 얻지못하면 아니되는것이다。鷺山李殷相氏는 正히 그사람이라 할것이다。

朝鮮詩歌界에 잇서서 李殷相氏는 斷然히 巨擘이다。將來에는 몰아도 今日까지에는 이 方面에서 氏의 右에 出할이는 없을것이다。그는 다만 國的 研究에서만 그러할뿐아니라 詩人으로 文章家로도 이미 定評이잇는바다。朝鮮史話集의 價値를 成하는것이 實로 氏의 純朝鮮語的이오 莊重、典雅한 文章인것은 말할것도 없다。

나는 이 冊이 어느 家庭에서나、어느 學生의 案頭에서나 반드시 親愛와 尊敬을 받을 손님이 될것을 믿고 바란다。

◇書齋風景◇

連載하든 讀書風景은 前週로써 끗내고 今週부터는 書齋風景을 시작합니다 누구의 書齋를 보고시픈지 投書하십시오 先着을 取하야 하나씩 揭載해 볼가합니다

◇ ◇ ◇

「에스」語書籍紹介

폴란드文粹集 (Pola Antologio)

金岸曙

폴란드文學이라면 누구나「어대로 가시나잇가?」의作者「시엔키에위츠」나 그러치아니하면 몃해前에「노벨賞」을 바든「레이몬트」가튼 作家를 손곱을만치 우리들의 이나라文壇에對한 知識은 가난하외다 그러나 자세히 물여다보면 그야말로 文運旺盛이라는말을 그대로 볼수가잇는것이외다

낡은傳說에다가 새롭은 生命을 부어넛는「니에모예우스키」와 古代文化에 對한 날카롭은 文明批評을 더하는「프루스」와 現代의 尖端的好奇心을 날카롭은「유모어」로 解剖하야 어대서지든지讀者의맘을맛질하게하는「발두츠키」가튼 作家들이 잇습니다 그리고 저「寡婦 마르타」의 作者「오르제스츠」가튼 사람은 相當히 그 數가 만흔 모양이외다。

이文粹集에는 作家十四人의 短篇스무個가 들엇습니다 그리하야「시엔키에위츠」의「燈臺직이」와「스지만스키」가튼作家의「루바르토브로서」와가튼 作品은 祖國에對한 뜨겁은 생각을 하소한 한것이요「오르제스츠」의「傳說」과「제롬스키」의「用板에서」가튼것은 人類에對한사랑을 말한것이오「가왈레위츠」의「마즈따會見」과「프루스」의「그女子가 사랑하는가」와가튼 短篇은 애닯히「유모어」한 것이라할만하외다 저「고룸러츠키」가튼 作家의「제비와 나비가무엇을 물으는가」와가튼 所有의感情을 否定한 찰딱한 短篇가튼것은 그야말로 한個의 眞珠라할만치 아름답고 表現으로외 致를보엿다할만하외다。

勿論 이限定잇는 紙面에서나는 이들作家의作品에對하야 一一히말할수는 업습니다 그러하야 이中에서 낫닉은「시엔키에위츠」의「범에서」라한 短篇의 大略이나 말하라고합니다 누구나「시엔키에위츠」라하면 熱烈한愛國者로 그의作品에는 長篇小說인줄로 생각합니다 마는 그의短篇도 적지아니합니다 아니 [illegible] 가진것이외다。

文學品이란 다른記錄과는 달나서 感情的表現이것만치 간단하게 內容이 이러저러하다는것만으로는 그것을評價할수가 업슬뿐아니라 한거름더어가서 그것이 正말 如實한表現을 가젓는가하는疑心짜지함께 그表現을 보지아니할수가 업는것이외다。그것을 자세하게 討論해보라면 不可不 原文을 보지아니할수 업는것이니 그러길래 文學品의번역이란 거의 不可能한일이되고 마는것이외다 如何間줄기를 말하겟습니다。

어느大學哲學科에 다니는 가난한學生이 예수敎信者로 돈만흔사람의딸「롤라」를 사랑하든것이엇습니다 學校만 卒業하면 結婚을시켜준다든것이 學校를 卒業하고 學位까지 엇게되엿슬때에는「롤라」의父母는 무슨생각이잇든지 그約束을 拒絶하엿습니다 그러하야 哲學士는 失戀을當하고 괴롭아하며 이째지오면서 어릅어릅 自己를속여온「롤라」의父母와 또는「롤라」의사랑에對한것을 恨歎합니다。

말할것도업시 實行업는 約束을 쏘짓든것이엇습니다 그러나 이失戀者의 쏘짓든말이 效果가 잇섯든지拒絶當한이는날아츰에「롤라」의아버지가 일부러차자와서自己생각이잘못되엿스니容恕하고「롤라」와約婚해달나고請하엿습니다그러하야이失戀者의가슴에는새롭은希望이봄날에움파가티 돗아나든것이엇습니다 이미「롤라」와約婚까지하엿스니이두約婚者는 맘대로 郊外散步도하며 이곳저곳구경도 다니지못할것이 업섯슬것이외다 뭄가는자미롭은날은날이未來의夫婦生活에對한새롭은計劃과期待를남겨주고 지내갈뿐이엇습니다 가튼동무들은 이哲學士와 幸運을 부러워하지아니하는 사람이 업섯습니다 이罪上의幸福이란 모도다 自己한몸에 모혀두듯한생각을「롤라」와哲學士는禁할수가 업섯는것이외다 未來의夫婦는結婚하고 살집이며 家具가튼것이며 살림사리에對한모든것을 다議論하고 모도다決定하엿습니다

結婚할날이 되엿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러케 얌전하고 그러케사랑스럽든「롤라」는무슨까닭인지 아츰에일즉이 이러나서나간뒤에는 도모지 그얼굴을 나타내지아니하엿습니다 아츰밥째가되어도 어대간지를 알수가업섯습니다 그래서 男便은차자보앗습니다 房안에는 아모데도잇지아니하엿습니다

後園을 차자돌아 다니노라니 꼿이피여 욱어진 꼿밧속에「롤라」가 안저서무엇을 생각하는것이發見되엿습니다 그래「롤라!」하면서 男便이갓가히가니「롤라」는 눈물을씨츠면서 몰아보지도아니하고 달아 나든것이엇습니다 뭄이나케 다름박질을하야따라가서안해의손을잡고왜그러느냐고 물으면서 自己가잘못한것이 잇거든 容恕하라고男便은 빌다시피 哀願을하얏스나「롤라」는 조곰도 깃버하지아니할뿐아니라 自己는어대를 가겟스니 그리알아달라고하면서 잡힌손을 뿌르치며 다라나라고하앗습니다 그래서男便은 노치아니하라고 애를쓰며 밀고 재처고하얏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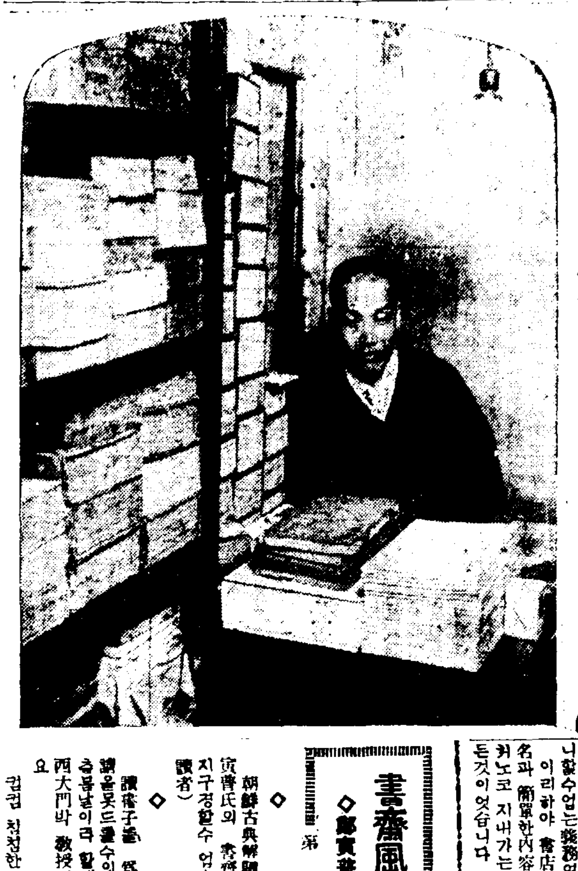
그러나 이우에 말한것은 現實은아니고 哲學士가 失戀當한뒤에 熱病에들어서 世上모르고 두週日동안 지내면서 꿈이엇습니다 생고보니「롤라」의손이라고 꼭잡고잇든것이 寢臺의鐵棒이엇든것은 勿論이엇습니다 熱病에는 들엇슴망정 그동안에 사랑을 꿈쑤게된것은 幸福의 생물은 한두방울마신것이외다하는말을 作者는 哲學士의입을 빌어 끗을맺고말엇습니다

나는읽기조차 妙하게 옮겨놋치못하엿습니다。原文의살아뛰노는表現은 아직까지 나의머리속에 잇습니다마는 나로서는그것을 그려내일수가 업는것이유감이외다。이文粹集은「카쩨」라는에쓰페란토文章家로有名한어의손에서 된것이외다。

發行所 Librairie Hachette et Cie 79, Boulevard, Saint Germain, 79 Paris, France.

四六版、假製本、一五四페지 定價一圓二十錢

(日本에쓰페란토學會나 丸善會社에서 살수가잇습니다)



朝鮮古典解題 (十二)

李椒園 忠翊의 椒園遺藁

延專敎授 鄭寅普

椒園遺藁二冊은 李椒園 忠翊(英祖甲子(一七四四)—純祖丙子(一八一六))의 著이니 椒園은 布衣로 一生을마추엇스나 寥寥한短篇이 實로風會升降에關한 巨大한背景이잇다 近世朝鮮學의 源系 대략三派ㅣ잇스니 星湖를宗師로하고 [illegible] 關하)잇고 霞谷의學을 承受한 一系잇나니 이三系로말하면 成明迹도 잇고 成滯痕도 잇스나 諸家의學說을會通하야볼때 自然 그조차난바를 알수잇는것이다 그러나 三系의樹間이야 뭇하게도 瞭然시合하야 거의 一先生의指授인것가튼은 다른緣由가아니라 當時朝鮮人의切至한 [illegible]

에닭이다 지금와서 그때를생각하면 누구나 다이苦憫이잇슬것이며 누구나 다 이省悟ㅣ잇슬것이엇마는 茲盲이오래두고기피들어 觀察하는눈은染習의흐려운배되고 持守하는道理는 衛僞에서끗고마랏다 群衆의腦裡로부터滿芽하는『求是』的趨向이들코나설 그바를 차지라고 얼마동안헤매엇슬것이다 그러나 滿芽ㅣ청청尖는힘이잇섯는지라 그중俊秀、異質의高識도조차 여긔저긔터지고 맛게되엇다 꼿이달다고 연작이아니다 때가 좀청등난다고 연작이아니다 그럼으로 交游、親姻의相近함으로조차 派系의 分別이업지못하나 그時代그地域의自然한發芽임을 알것가트면 趨向의一致됨을외심하지아니할것이다 椒園은霞谷學系의 一人으로서 가장老壽를누리고 가장文章이高古하얏슴으로 一系의關鍵이 더개이遺藁에 寄傳함이잇서 李月巖匡呂의遺集、南正和의說文新義、申石泉綽의 詩次故의敍錄과 鄭玄同東愈、李信齋令翊、申宛丘大羽의誌傳의類ㅣ 다近世學術史의貴重한材料가되며 더욱이 그는十二歲에 家難을만나 平生의大部分을 北塞、南海에 바리엇슴으로 民生의艱苦를 體認하얏스며 困阨에서자라고 畏約으로 늙어 死生榮辱으로動하지못할 洪然한本地를삐다랏나니 마치 陽明의龍場과昏歸하이잇다 이렁수룩 그苦憫、그省悟ㅣ切實、眞正하지 아니할수업는것이다 이遺藁에 실린 것으로도 假說上下ㅣ 洪軒의 醫山問答과 一瀨이라 醫山은 虛를攻擊하고 假說은假를 指斥하엿다 假ㅣ虛 이오 虛ㅣ假이니 두분의眼光이 이가티 한곳에 쏠임이 이또한三系의歡向이一致되는證驗의 하나이다

椒園、洪軒이 서로往來도잇지아니하얏것만 醫山問答의『正學之扶、實由衿心、邪說之斥、實由勝心、救世之仁、實由權心、保身之哲、實由利心』이라한것과 假說의『禍者、所以別嫌明微也、裁削思情而薄於君親者假之、稱秋者、所以懲不恪而儆䛒慢也、私好勢悄、以整人者、假之仁』이라하고『除戲於雜刀而幽趨乎羅織、出而獨仲則曰、孔孟急於救時也、處而偃蹇則曰、賓師之道、然也』라한것이 가리안겨兩鼠한藥本이나다름이업다 또『君子之過說』一篇이잇서 朝鮮窩竊의病因을抉摘하얏는데 星湖의獵發錄의議論한바와 比較하야보며 星湖는『意欲』에다가 着眼하야 그들의隱伏된利慾心을 말하얏고 椒園은『形勢』에다가着眼하야 그들의推滾된所以를말하얏다 이는 좀다른듯하나 自身이 다하편의 仇怨이잇것마는 이에서 私慾들이르킴이업고 民族的大苦悶과 時代的大省悟로조차 滿見을擴碎하라하는 그標期에이르러는 조금도素池함이업다 그러나 本地의實工을그대로文字에다 悉露하지못하고 오즉洪寂의眞趣를 釋氏에부처 間間 微言이실리어잇슴은 近巖한세상과 畏約한處地를 反映하고 남는바이다 鄭順安(自號는업고 顧安堂를지낫습으로 士友間에서이로서稱呼하얏다) 東萊祭椒園文의

六藝之奧、百氏之博、提乎醇眞、簡其精粕、無然依附、無當把捉、遊刃於疏、節析竅析、乃落厥根、枝葉皆落、知之爲行言誠其卓

이라한것이 椒園의學術根柢를 實序한것이다 詩도高詣가잇서 月巖의淡雅를 緊健으로써變하얏스나 이遺藁의價値는 이에 잇는것이아니다

書齋風景

◇鄭寅普氏書齋 (第一景)

◇ 朝鮮古典解題를 쓰시는 鄭寅普氏의 書齋는 大體어떤지 구경할수 업슬가요(城津一讀者)

◇ 讀書子를 爲하야 그만한 請을못드를수잇습니까 삐마즐봄날이라 할개를 활짝 처며 西大門박 敎授의宅을 차젓지요

컴컴 침침한 뒤人방에 옛장가티된 五千餘卷의 누덕이 책을 左右에 城壁 처럼 싸코 別有天地를 일우잇겟지요、

◇ 구태여 멀리서지 와서 敎授의 書齋를 구경하실것은 업스십니다、

으스름 달밤에 녯城터 흐르로 거닐거나、靑苔가 욱어진바위틈바구니에가서 안즈면 그實感이 잇스리이다、

◇ 비록 누덕이되고 좀은 먹엇스나 그속에는 古朝鮮에 빗나는 歷史와文化 그리고 온갓 우리의 寶物이 들어잇는金鑛입니다

이 鑛속에서 作業하는 敎授는 녯 寶物을 찻기에 눈이붉은朝鮮의 貴한 鑛夫입니다

書庫獵奇

大同江人

로마의 製冊術

古代「로마」의印刷術이 생기지못하얏슬때에도書店은만핫습니다 더구나 公設市場가튼곳은 書店의 根據地라할만 하얏습니다 모든일을 奴隸가 다하고 보니 市民은 消日거리로 讀書밧게할것이 업것습니다 더욱 女子들은 社交界의地位를 作詩와 批評으로 붙히라고 하얏기때문에 詩書가 그들에게는 하지아니할수업는義務엇든것이외다

이리하야 書店에서는 新刊書名과 簡單한內容과價格을 써부처노코 지내가는사람의맘을끌든것이엇습니다 書籍의 表紙가 盛裝으로는 나무껍줄이 아니여 紫色革皮엿스니 至今으로도 濶色업는盛裝이외다

그리고 書店으로 詩人이나文士나 科學者니하는사람들이 모혀서 自己의 作이나 또는 남의 作品을 소리 놉히 읽기도 하고 批評도 하얏습니다 이런케 놉흔 소리로 朗讀 하는것은 五十名또는 百名假量되는 奴隸가 바다썻습니다 이바다쓴것을 裝釘하야 發賣하얏스니 奴隸의 智識에도 놀랄일이어니와 一般에게 作者가 公開하는뜻에 이러한 一擧兩得의結果를 엇든것이엇습니다。

그러나 冊갑은 대단히쌋습니다 그것은 奴隸에게 삭전을조곰 주지아니하얏슬뿐아니라 준다하더라도 몃分되지 아니하얏기때문이외다 저「마르리알리스」의 詩集가튼것은 盛裝한것이 貳圓가량밧게 아니되엿고 普通製는 四五十錢에 지내지아니하얏스나 印刷術의進步된 今日의冊갑과比하야 얼마나 歇價인것을와만하외다 더구나 良書라고할마한것이아니면 그때에는 이러케라도 出版이 되지못 하얏스니 印刷術의 進步된標準에 맘대로 優秀한作이라도 出版할수잇는 現代와는 대단한差異가 잇다할 만하외다。

졸라의處女作

千八百六十四年六月 어느날 書店「락크로아」를 어떤靑年이 차자와서 原稿를 내어노흐면서 수집어하는 態度로 自己原稿는 아모書店에서도 出版해 주라고 하지아니하나 당신네 書店에서 出版해줄수가 업겟느냐고 懇請하게 請을 하얏습니다 本來書店主人「락크로아」는 類다르게 新進作家를 推獎하든터이데 더구나 그 靑年의 熱心한말에 感心이되어 단마디로 出版을 承諾하얏스니 이靑年이란말할것도업시「에밀 졸라」로冊이름은「니농이야기」라는것이엇습니다。

千八百六十四年 十月 二十四日에出版된 이冊이 二四百部假量밧게 아니팔렷슬망정 이만한 販賣이면 프랑스文壇의 初陣出馬로는 서투룸지아니한 成功이라합니다 그러나 이보잘것업든것年이 後年「쨩레옹」에 파무처올 十九世紀의 偉大한作者가 되리라고는「졸라」自身도 몰랏슬것이오 더구나 書店主人은 꿈에조차 생각도 아니하얏슬것이외다

新語解說

▲몹、씬 (英Mob scene)劇이나 映畵에서 群衆이 만히登場하는場面을 이르는말이다 이런場面에는 이른바「엑스트라」(Extra)를 만히쓴다 그런데「엑스트라」란말은臨時로雇用하는 俳優란意味인데 대개는 劇이나 映畵에 서투른사람들이다 그럼으로「몹、씬」일스록 다만數로만 만홍으로 表하기를爲主할것이 아니오 專屬俳優가잘「리—드」하야 散漫한가온대에도 調和와統制가 잇도록해야 할것이 勿論이다

讀者의態度

甲에서는傑作이 乙에게는 劣作이되고보니、이것은 讀者의態度하나로 作品의鑑賞이 달나지는것이외다。그러기에 讀者로는 첫재에 作者가 무엇을 썻는가、그다음에는 그作者의 쓰라고한것이 完全히表現되엿는가、그쓰라고한것이 人生에게 또는社會에 얼마나 重要한것이며、얼마나깁흔 關係를가젓는가하는 態度로讀書할것이외다。그러나 어대까지든지 公平한 態度로 對할것은勿論이외다、마즈막으로 作者의쓰라고 한것이 人生에게 또는社會에 生活에有利한것이요、또는完全히 그것을 表現해다할것가트면 그것은 조흔冊이라할수잇는것이외다。만 일것도업시 이것은 讀者의한가法이요 어데서지든지 곡그러라고 할수는 업는것이외다。

擴大된讀者層

「맑시즘」의洪水時代

新興中國의最近出版界

◇ 우리民族과 中國의 여러가지 關係가 緊接한것은 다시說明할 必要도업다 그런데 中國의새思想 새文化에對한 우리의研究와 紹介가 적은것은 遺憾이라아니 할수업다 現在의 朝鮮敎育을바든이로 中國의現代文을 理解하기어려우나 漢文에因緣기픈 우리는 그現代文을배우기가 容易하다「白話詞典」「國語詞典」가든것을 豫備하아두고 獨學自習하면 普通의新聞雜誌書籍은 넉넉히알어볼수잇다

◇ 오늘中國人의 讀書熱은 크게 恢復되어 길에서 電車에서 商店에서 到處에서 冊子를 들고보는사람을 보게된다 數年來로出版界의躍進은 자못猛烈하다 西洋作文書籍에對한 翻譯이 從來出版界의 唯一한事業이엇스나 오늘에와서는 各方面으로 創作的努力이 나타난다 特히社會科學文藝의進步는 一瀉千里의 感이잇다「맑스」主義讀物은 洪水時代를出現하야 書店마다「맑스」主義讀物廣告로 競爭한다

◇ 이제最近의 傑作名著로 社會의定評잇는著作을 紹介하면

△超人(小說)—新中國의女流文豪氷心女史作
△繁星(小說)—上同
△愛羅先珂童話集 新興階級의文豪魯迅氏作
△一個靑年之夢(小說) 上同
△孔子與耶穌 陳獨秀著
△「맑스」傳 李季著
△靑年之路 戴季陶著
△今日中國之重要問題(英文) 李登輝博士著
△中國美術 二藏獄著
△東西哲學及其文化 梁漱溟著

(中國의新出版書籍의 國內普及을目的하고 上海霞飛路一〇一四弄二十七號大漢洋行에서 批發部를 新設하얏사오니 國內讀書子는 右洋行에 注文購讀하시오)

(上海에서 中特派員)

東光 飛躍의 四月號 四月一日出來・定價三十錢 東光社

東光

農業恐慌農民沒落過程 馬鳴

朝鮮農村社會問題……林炳哲

農村問題特輯
水稅延納運動 吳基永
定平農民總檢擧眞相 任鳳淳
農村事業과基督敎 洪秉璇
大道敎農民運動 金一大
農村은어대로가나

二次大戰豫言 루덴돌프將軍

解消냐分立이냐「危機에선運動線」 朱耀翰
道廳移轉費削除裡面
간디對처칠 露文家 가린
傳說의豆滿江 光化門人
韓相龍과「同友俱樂部의正體」
非暴力論 團結工夫……春園

敎育義務免除 朱耀燮
印度黨員法廷演說 네루
比人이본比島獨立 갈라우
無名氏傳 李光洙

余의作家的態度……李光洙
(詩)靜思……梁柱東
(詩)기름이말르젓인것을……李揆元
(詩)漢江水……趙宗玄
(詩)기림……李一洙
(詩)農村情景……宋順鎰
(詩)近泳……全佑漢
讀書室 유모어

二百圓大懸賞答案 附添紙用・最後五分

東光社新刊
朝鮮史話集
李殷相先生著
定價一圓 送料十八錢
內容見本進呈

明治ミルクキャラメル 밀크 카라멜
改正定價 小4錢 大8錢
東京 明治製菓株式會社 丸ノ內

ClibPDF - www.fastio.com